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밥상머리 교육과 학교 교육

교육은 먼저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며 경험을 재구성(再構成)하도록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며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모여 만나는 밥상머리에서 웃어른으로부터 가르침이 이루어졌으며 경험의 총체인 교육과정(教育課程)은 바른 인성 교육과 잘 살기 위한 경제 교육이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모의 직업이 다양해지고 경험해야 할 종류와 양이 늘어나면서 형식적(形式的)인 구조를 갖춘 학교가 생기게 되어 가정에서 하던 교육을 학교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인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학교의 탄생 교육사(教育史)를 보면 대학이 먼저 생겼고 유치원이 가장 늦게 생겼다.

밥상머리 가정교육은 대가족사회의 가정에서 어른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직업 구조가 간단한 일차산업인 농경문화에서 경제 교육과 가업(家業)을 전승하는 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중등학교 수준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대가족제도에서는 웃어른을 중심

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인성교육인 예절교육과 효 교육 등 바르게살기교육과 잘살기 위한 경제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가정교육은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인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주로 부모가 하게 되었으며, 부모의 직업 관계로 밥상머리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가정교육을 잘해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인간을 자원으로 삼아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천재인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천재를 천재답게 키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재는 돈재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성경과 탈무드 책을 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하며 조기교육을 통한 창의력 계발과 진로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소수 민족국가면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민족국가이다.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면, 이스라엘 어머니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선생님께 물어보았니?"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어머니는 대부분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엇을 배웠니?"라고 한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창의적 질문이 있는 교육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학교 교육은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 대학이 생겼으며 이어서 중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 생겼다.

학교 교육은 학교라는 형식적 틀 안에서 교육 시설을 갖추고 교사라는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가정교육을 받은 자녀들을 경험의 총체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연장인 학교 교육의 주류가 인성교육과 경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경제를 등한시하여 학생저축 교육이 사라졌다.

한국경제 발전의 기반인 새마을 운동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어 소외되고 있다. 반면 민주화 바람은 노사분규라는 역풍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길은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을 잘해서 인재를 양성해 인적 자원을 수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해마다 학년이 시작할 때 편성하는데 당해 학

년도에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을 정하는데 상위 목표인 국가에서 국민교육을 위해 요구하는 기초(基調) 자료와 학생의 실태, 지역사회와 학부모 요구의 기저(基底) 자료를 종합해서 교과 과정과 도덕 과정 특별활동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 과정과 창의체험 학습 과정으로 2층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당해 학교 학년의 교육과정에 빠진 것은 학생이 경험할 수 없다.

문자를 익히는 교육은 초등학교 때가 암기력이 좋은 시기라 적기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한자를 익히는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한자 교육을 초등학교 창의체험학습 과정에서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미온적인 교육시책과 학교장의 안일한 학교경영 소신과 학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소외되고 있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상에서 자율학습으로 한자를 익히고 있다.

오늘날 교육은 가정교육이 학교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공교육인 학교 교육이 앞지고 내실 있게 해야 하는데 부실한 공교육을 학부모가 믿지 못하고 사교육인 학원으로 자녀를 보내 혹사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낭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지능(知能)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높고 교육열도 높지만, 교육정책의 실패로 이스라엘 민족에 뒤떨어지고 있는데 밥상머리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기고

안전의 출발은 비상구 개방부터

마트, 백화점, 터미널과 같은 볼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이용 시설에는 화재나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비상구"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주 출입구 외 비상구 위치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시 화재에서 비상구가 막혀 사상자의 대부분이 출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사례는 우리들에게 비상구의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비상구를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관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



박상애 담양소방서장

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관리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장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주면 된다.

이처럼 비상구의 개방은 곧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이고 우리 이웃의 안전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안전 예방 활동에 동참한다면 오늘보다 더욱 안전한 내일이 오지 않을까?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봄철 건조기 화재 주의해야

우리나라는 완연히 봄이 시작되는 3~4월을 전후로 바람이 가장 세게 불고, 또 이맘때는 비 오는 날의 횟수가 적어 작은 불티만으로도 쉽게 화재가 난다.

보통 하루 중 산불과 같은 화재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시간은 습도가 낮은 오후 2시를 중심으로 12시부터 6시 사이며,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

요일에 많이 발생한다.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따뜻한 봄철에 자주 일어나는 산림화재의 대부분의 원인이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인한 실화, 한식날을 전후한 성묘객들이 담뱃불, 논·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 중 실

화, 어린이들의 불장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 등산할 경우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물질의 휴대를 일절 금하고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행위나 불 피우는 것도 일절 금해야 한다.

△ 발두렁·논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 시에는 소방서 등에 사전 신고를 하고 불길이나 산림에 옮겨붙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평상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복구하는 데 30년이 걸리며, 자연적인 생태계 회복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오랜 기간동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봄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동운/담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